

고부야마다니 마을 터

고부야마다니는 이와미 은광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류젠지 갱도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 터입니다.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후반까지 이와미 은광이 번성하면서 언덕의 경사면 일대에는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암반에 뚫린 다수의 갱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평탄한 계단식 지대 위에 노동자들의 마을과 은을 가공하는 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고부야마다니 마을은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와미 은광 근처에 있는 센노산 기슭과 거리가 가까워서 비교적 접근이 편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저지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은 재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종종 홍수가 발생하여 때로는 마을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고부야마다니 위쪽에는 신요코아이 갱도가 있습니다. 신요코아이 갱도는 에도 시대(1603~1867) 중기에 개발된 것으로 고부야마다니에 살았던 광산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요코아이 갱도는 수직으로 뻗은 은 광맥에 닿을 수 있도록 산중턱에서 수평보다 약간 위쪽을 향하는 각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채굴 과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외부로 쉽게 흘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갱도는 하나 이상의 은 광맥과 평행이 되도록 급격한 각도로 아래를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맥을 따라 만들어진 갱도는 배수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물로 가득차 버리고 맙니다. 고부야마다니의 광산 노동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형태의 갱도를 발명한 것 외에도 은이 전부 채굴되자 구리를 채굴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는데,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은 이와미 은광의 권리를 손에 넣은 후 근대적인 광석 선광이나 제련을 위한 시설을 고부야마다니에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20 세기에 접어들 무렵 인근에 자리한 고지다니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350 년 가까이 채굴이 이루어졌던 고부야마다니에는 결국 조용한 정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